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8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9월 21일 (음력 8월 12일) 금요일

광양제철소 환경개선은 뒷전인 채 환경단체 '무마용 설명회' 비난 사



황연과 비산먼지 배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광양제철소가 근본적인 환경개선 대책은 없이 일부 환경단체를 초청해 설명회를 가졌다.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은 광양제철소"라며 광양제철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및 투쟁을 전개해 왔다. 바병관 광양민간단체협의회 회장은 최근 광양제철소가 황연과 비산먼지 배출로 문제가 되자 제철족이 비산먼지 발생 억

민원 제기하자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사업 설명 일부 단체 관계자 퇴장하는 등 반발 사기도 해

광양제철소는 지난 19일 광양시 5개 환경단체 대표와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는데 이는 모 환경단체가 감독관찰에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는 형식의 '달래기식 해명'에 그쳐 참석 단체의 반발을 샀다.

광양시 환경단체는 "환경오염의 주범

제시설 및 조치사항을 기재하여 관할청에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할청은 사업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광양시와 전남도 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사정이 이러하자 광양제철소는 부랴

부랴 환경단체를 초청해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광양제철이 마련한 설명회 자리에는 자료는 커녕 메모지도 제공되지 않고 업체에서 준비한 PPT(파워포인트자료)로 설명하는데 그쳐 보고 듣기만 하라는 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참석자들이 "제공할 자료는 없나?"고 하자 제철소 측은 "자료는 줄 수 없게 돼 있다."며 일방적인 사업설명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환경단체 관계자가 퇴장하는 등 반발을 사기도 했다.

광양제철의 이같은 설명회는 환경단체를 구슬리고 이미 제기된 민원을 무마해 보겠다는 알박한 술수에 불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는 광양제철소가 환경개선에는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4개 관련부서의 구차한 변명만 늘어 놓았다는 데 있다. 광양제철소가 황연과 비산먼지 배출에 따른 근본적인 시설 개선 사업이나 항구적인 배출 차단책은 제시하지 않고 변명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는 '탄산리불 추진현황', LNG 발전 황연 저감 추진현황, SNCC 백연 저감 추진현황, 제철소 대기환경 추진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광양제철족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설명회 자리가 우리들을 무시하는 듯해 매우 불쾌했는데 그런 자리 인증 알았더라면 애시당초 참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살기 좋고 폐적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광양시는 황연과 백연, 비산먼지까지 배출하는 업체를 철저하게 색출하는 등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재 기자

추석 연휴 휴무로 다음 호 1일자 발행합니다

◆ 湖南新聞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광주·전남지역 '가을비'

광주기상청, 오늘 오후까지 비 예보



공동의 소망

20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다.

광주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를 기해 완도·진도와 여수시 거문도·초도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를 해제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신안 가거도 135mm, 진도 서거지도 76.5mm, 고흥 도양 61.5mm, 해남 끌끌 49.5mm, 장흥 관산 48mm, 강진 33.5mm, 여수 32.6mm, 보성 20mm, 목포 9.5mm, 광주 2.5mm 등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기상청은 전날 오후부터 남해안에서 시작돼 내륙으로 확대된 비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21일 오후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 예상 강수량은 10~40mm다. 남해안은 20~60mm의 비가 내리겠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 지역에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안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추석 연휴 전남 다양한 행사

전남도는 20일 추석을 맞아 전남을 찾은 귀성객들이 지역 곳곳에서 기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세시풍속, 문화예술 공연, 가을산행, 힐링, 데이트코스, 축제 등 다양한 테마 여행지를 소개했다.

가족이 함께 전통 체험과 세시풍속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영암의 전남농업박물관과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는 제기차기, 푸호, 굴렁쇠 굴리기를 할 수 있다.

순천 낙안읍성에서는 전통띠 만들기, 형틀 체험과 풍물한마당을, 국립나주박물관에서는 25~26일 어린이들이 '신나는 우리 전래놀이'를 즐길 수 있다.

특별한 문화예술 체험과 공연 관람을 하고 싶다면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열리는 목포와 진도가 제격이다.

24~25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는 수목 칼리고페, 수목 목판체험, 수목화 체험을 할 수 있고 평화광장에서는 수목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25~26일 진도 운림산방에서는 진도 민속공연이 펼쳐지고 관람객이 직접 수목화를 그려볼 수 있다.

가을 산행하기 좋은 영암 월출산은 기암 괴석이 많아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린다.

특히 가을에는 미야자와의 역사별과 단풍이 이를답다. 고흥 팔영산은 8개의 아름다운 봉우리와 그림 같은 여자민이 다도해의 절 경과 함께 파노리마처럼 펼쳐진다.

장흥 편백숲우드랜드에서는 힐링에 특효인 피톤치드 사워, 나무공예와 소금의 집 체험 등 관광과 휴식이 가능하다.

우리가 정권을 뺏기는 바람에...

이해찬

다시는 뺏기지마시라우

김영남

남북 평화가 정착되...

이해찬